



KOCHAM '한인기업 윤리제고를 위한 공청회' 가져

MONTHLY KOFA

# 코파의

# 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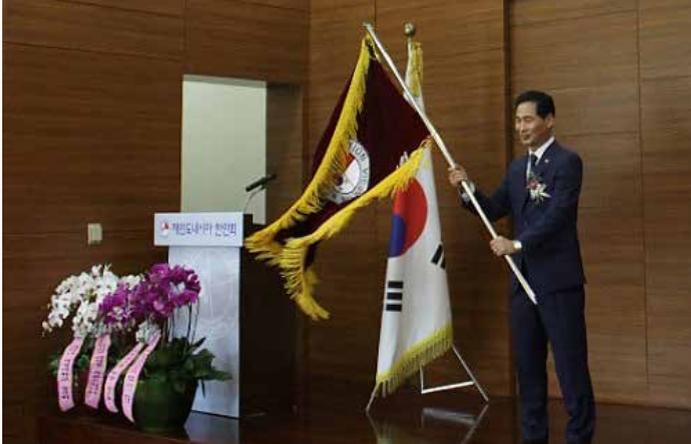
Tel. 021-5579728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Ruko Pinangsia Blok B-28, Karawaci Office Park

Vol. **55** 2019/04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이,취임식

## 제6대 박재한 한인회장 취임



▲ 제6대 한인회장에 취임한 박재한 신임회장이 한인회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Aditya)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19년 3월 28일 11시, 대사관 강당에서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 6대 한인회의 출범을 알리고 새로운 한인회장을 맞이하는 이 행사는 대사관, 한인회 임원 등 많은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한인동포들이 참석하여 박재한 한인회장과 집행부의 앞날을 축하했다.

김창범 대사는 “지난 3년간 한인회와 함께 준비하고 협동하여 여러 행사들을 잘 치러 낼 수 있었던 것은 양영연 전 회장님의 리더십 덕분이였다. 한인사회가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원로 지도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도약의 미래를 여는 하나 되는 한인회로 박재한 회장님이 이끄시리라 생각한다. 한인회와 대사관이 2인 3각하는 자세로 함께 전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양영연 전 한인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3년간 한인회와 행복한 동행이였다. 한인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고

“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가 아닌 ‘우리가 맞다’ 는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는 제 6대 회장단이 되길 바란다” 며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양영연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김종현 신임수석부회장의 한인회기 입장으로 한인회기가 이양되고 박재한 회장의 취임사를 들었다.

신임 박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한인회는 봉사단체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이어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 더 많은 한인들의 한인회를 향한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인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모든 활동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하겠다” 며 제 6대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해 나가는 한인회가 되도록 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신기업 명예고문은 “ 낮은 자세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 존

경받는 한인사회가 되기 위해 법을 준수함은 물론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한인목회자협의회 김종성 회장은 “시간은 기회이다. 3년 동안 한인들을 섬기는 자세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낙오된 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 고 축하했다.

신임 수석 부회장(손한평, 김희년, 김종현, 채영애)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혼성4중창단의 ‘산남어 남촌에는’, ‘고향의 봄’ 의 축하 공연, 시루떡 커팅 후 사진촬영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서 19개의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동포사회의 다양한 특별활동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 무보, 한국기업 수주 전제로 인니 발주처에 금융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역보험공사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페르타미나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경우 무보가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페르타미나는 인도네시아 전체 석유의 90%를 처리할 수 있는 정제시설과 독점적 판매망을 보유한 기업으로 앞으로 가스, 석유, 석유화학, 수송용 선박, 해양플랜트 분야의 협력력이 기대된다.

페르타미나는 2025년까지 정제능력을 두배로 늘리기 위한 정유플랜트 신·증설을 추진 중이며 작년 말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SK건설이 40억달러 규모의 증설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무보는 올해 안으로 페르타미나에 사전금융한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금융한도는 한국기업의 수주를 전제로 무보가 발주처에 신용한도를 미리 제공하는 제도다.

사전금융한도를 활용하면 발주처는 자금조달 걱정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한국기업은 금융부담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무보 이인호 사장은 “앞으로도 국영에너지 기업과 글로벌 우량기업에 대한 사전금융한도 제공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신남방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4년 후 신발 수출 배로 증가 전망”



▲ 파크랜드 중부자바 주 즈빠라 공장 생산현장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 사진]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포 산업장관은 신발 수출액이 올해 65억 달러로 증가하고, 4년 후엔 1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산업장관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호주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유럽과 자유무역협정(EFTA)을 체결함에 따라서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겼다” 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신발산업은 최근 제조업 가운데 수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신발 수출 증가 전망은 피혁산업에도 좋은 소식이다. 피혁산업은 2017년에 2.22%, 2018년에 9.42% 성장했다.

2018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5.17%였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 신발 수출액이 2017년에 49억1천만 달러에서 2018년에 51억1천만 달러로 4.13% 증가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 지향적이며 노동집약산업인 신발산업을 우선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장관은 “섬유와 의류 산업과 함께 신발산업이 4차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준비시켜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늘릴 것” 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 한인기업 야반도주 파문에 인니 교민사회 “자정 노력” 다짐

## 퇴직금 지급 대비 적립 · 한계기업 폐업시 조기지원 제도 등 논의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대표의 야반도주와 임금체불로 인한 파문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현지 한인사회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섰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는 23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시내 사무실에서 ‘한인기업 윤리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봉제협의회(KOGA),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주아세안 한국대표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에선 한인기업의 야반도주 실태와 원인,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이 논의됐다.

KOGA 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재한 한인회장은 “오너가 책임감 없이 한국으로 돌아간 것은 도덕적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가 된다. 그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부터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화한 한국 봉제업체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채산성이 악화해 왔다.

서(西)자바 주에 밀집해 있던 한인 봉제업체 일부는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영세 업체들은 파산할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

KOGA의 김동석 사무총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제대로 임금을 주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많다”면서 따뜻한 겨울 날씨 등의 영향으로 대량의 재고가 쌓인 만큼 올해 5월 전후 또다시 야반도주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인도네시아 내 한인기업 전반을 악덕 기업으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사무실에서 ‘한인기업 윤리제고를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경계하면서도, 시대상의 변화에 걸맞게 기업윤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

을 같이했다. 한 참석자는 “한인기업 전반이 나쁜 행실을 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상당히

왜곡됐지만, 이 나라 법규를 최대한 준수하는 쪽으로 기업 윤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하려면 기업인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용 코파 수석부회장은 폐업을 할 경우 최대 분쟁요소가 되는 퇴직금 지급을 대비해 연 매출의 5% 내외를 매년 사외에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한계기업 폐업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서(西)자바 주의 봉제업체 SKB의 대표 A씨가 작년 10월 잠적한 사건을 대대적으로 이

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A씨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6억5천만원을 마련해 송금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이 요구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쉽게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법원은 내달 22일 SKB의 청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지 일각에선 SKB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2012년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했을 당시 무노조 경영에 반발한 노동계가 한국 노동·인권단체와 연대해 1년이 넘게 집회를 벌였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 ‘야반도주 논란’에 노동부, 인니 한인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인의 야반도주와 임금체불 사건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지에서 한인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 세미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자카르타에서 ‘2019 한인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사발전재단과 현지 한국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현지 한인기업 최고경영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인도네시아 노동법규와 파산·청산 절차, 노사갈등 예방 및 해결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서(西)자바 주의 봉제기업 SKB의 한국인 대표 A씨가 임

금을 체불한 채 잠적한 사건도 거론됐다.

송창근 KOCHAM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SKB의 사례를 거론하며 “피할 수 없었던 사건 같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해당 지역의 임금경쟁력이 사라졌고, 노동집약적 사업은 더욱 그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천500여개 한인기업 상당수가 이미 지 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를 교훈 삼아 기업윤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한인기업과 한인사회가 높은 파고를 만났다는 인상을 받는다”면서 “이 세미

나가 기업운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날 오전 무하맛 하님 다끼리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을 만나 SKB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10월 잠적해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SKB 대표 A씨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6억5천만원을 마련해 송금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 측이 요구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쉽게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법원은 내달 22일 SKB의 청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한국 노동인권단체와 연대해 SKB



▲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야야나 미드플라자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9 한인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에서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3.26 [사진:연합뉴스]

사건을 대대적으로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주류언론은 올해 1월 24일 CNN인도네시아가 SKB의 임금체불 사태를 보도한 것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 사안에 아직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 기술과 열정으로 다가간다!

**사 출**  
일반사출(TPU,ABS,PC,PVC)  
프레스(알루미늄,신주,철..)  
TPR,PU,PVC

**금 형**  
일반 금형  
프레스 금형

**코 팅**  
진공증착(멀티/알루미늄)  
UV AUTO 코팅

**스크린**

**인 쇄**

**패드**

**PT. KEINTECH**

Jl. Wisata Jangari KM 17 RT/RW 001/008 Desa Bobojong, Kecamatan Mande, Kab. Cianjur 43292 – Jawa Barat  
Telp. : 0263-2294286, 0263-2294321, 0263-2294315 Fax : 0263-2294451

## 정부, 인니·필리핀·말레이와 양자 FTA 체결에 '속도' 산업부 통상정책 방향...RCEP 지지부진하자 양자 협정 강화로 선회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이 같은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3국과 양자 FTA를 조속히 매듭짓고 이

들 FTA와 연계한 산업, 에너지 등 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3개국을 비롯해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추진하고 있는데 RCEP 협상

이 지지부진하면서 다자 대신 양자 무역협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통상추진위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논의와 디지털 교역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비한 대응도 점검했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현재 미국은 중국 등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부유한 국가들이 자신을 개도국으로 지칭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도 농업과 수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세계 6대 수출국이라는 우리 위상에 걸맞게 WTO 규범 제정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규범 논의를 주도해나간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시될 예정인 WTO 전자상거래 공식협상에도 참여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완료했으나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엄중하게 통상현안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아시아 제조업 경기 악화 진정...동남아 상승 “관건은 무역협상...비틀기 연준·中부양, 경제 연착륙 유도”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주요국 제조업 경기가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회복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이 1일 발표한 3월 차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4개월 만에 확장 구간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PMI는 기준선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전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공식 제조업 PMI도 50.5로 전월의 49.2에서 경중 뛰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만에 기준선을 넘었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경기둔화가 심해지자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 효과가 이들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지표도 전반적으로 안정 추세를 보였다. 다만 중국만큼 호조를 보이지는 않았다. 동남아 국가들의 제조업 경기는 소폭 회복했다.

3월 태국 제조업 PMI는 50.3으로 확장세로 전환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각각 51.2, 51.9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아시아 각국 제조업 PMI 지

수는 전반적으로 반등했지만 이를 과대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설 연휴가 언제인지에 따라 1분기 데이터는 크게 움직인다”며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수요 둔화가 단기간(아시아) 지역 수출을 압박하고 경제활동을 제약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닷케이와 IHS 마킷이 발표한 한국의 3월 제조업 PMI는 48.8로 전월의 47.2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경기 확장 기준선인 50은 5개월 연속 넘지 못했다.

일본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3월 일본 제조업 PMI는 49.2로 전월의 48.9보다 상승했으나 두 달 연속 기준선 아래 머물렀다.

일본은행이 이날 발표한 1분기 전국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短観·단관) 결과도 썩 좋지 않았다.

대형 제조업체의 단관지수(DI)는 12로 여전히 낙관론이 전반적으로 우세했다. 이 지수는 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수치다.

그러나 이는 전 분기(19)보다 크게 낮아졌을 뿐 아니라 시장 예상치(13)에도 못미쳤다. 이들 업체의 3개월 뒤 경제전망도 8로 전 분기의 15보다 떨어졌고 시장 전망치(12)를 밑돌았다.

대만의 3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전월의 46.3보다 크게 상승했으나 역시 6개월 연속 위축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아시아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지 관건은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호아킵 펠스 펄코 글로벌 경제고문은 로이터통신에 “아직은 글로벌 무역 주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징후가 별로 없고 글로벌 성장은 단기간 더 낮은 수준에 동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선회와 중국 부양책이 경기 안정화나 소폭 반등을 이끌 수는 있다면서 “비행 중 저기압 지역을 더 만나기야 하겠지만, 이런 요소들이 글로벌 경제에 연착륙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조코 위도도 대통령 “경제성장 핵심은 고속도로 건설... 더 빠르게 추진할 것”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을 더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북부 수마트라 메단에서 실시한 언론사 간담회에서 “말레이시아

는 인도네시아 보다 뒤늦게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어 “고속도로는 물류 효율화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각지의 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게 정비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연장 782킬로미터의 고속도로가 건설됐다. 정부는 올해 말 1,854킬로미터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 ACE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HVAC ENERGY DIVISION

공장이 무더워서 일하기 힘들다면... EVEL HVLS 실링팬을 설치해 보십시오. 그 효과에 대만족 하실 것 입니다. !!!



#### 인도네시아 설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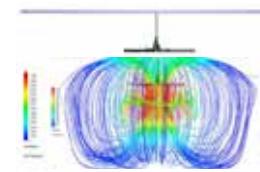


#### 제품특징

- 이태리에서 원천 제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립 생산한 저속 고품량, 산업용 명품 천장형 공조팬
- 전기료 부담 최소 (750W / 대형선풍기의 3배)
- BLDC 모터 장착 - 소음과 내구성 탁월
- 건기/우기철 1년 내내 사용 가능 (건기철 : 뛰어난 더운 공기순환과 냉방효과, 우기철 : 습도제거와 쾌적한 기류 제공)
- 보증기간 : 핵심부품인 모터류 20년 사용보증, 제품 무상보증기간 : 3년

#### 제품스펙 (Fan 직경 4M 기준)

- 제품라인업 : 2.2 ~ 7.3M (Fan Diameter 기준)
- 산업용(공장) 추천 제품 : 4 ~ 5M (Fan Diameter)
- 설치 수직높이 : 6 ~ 8M (팬 위치와 바닥높이의 간격)
- 설치 수평간격 : 16~ 18M (설치 제품간의 추천 간격)



- \* Weight : 85KG
- \* Fan Speed : 100 Rpm
- \* 380/220V 설치 가능
- \* Control System : 유, 무선방식 가능 (무선리모콘은 옵션)

제안,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락처: Mr. STEVE YOUN 0812 -9730 -5553 / 이메일: steveyoun.indo@gmail.com

GRAND WIJAYA CENTER BLOK E-11(A-9) Jl. Darmawangsa Raya -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60 - Indonesia, Office : + 62 - 21-2708-1859 / 720-4320 \* 스마랑 지점 Mr. PARK 0811 -850 -5540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대외경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동참해 103조원 상당의 인프라 건설사업을 중국 투자자들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판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일대일로 관련 포럼에 참석한 뒤 20~21일 발리에서 개최될 회의에서 중국 투자자들에게 28개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안될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는 911억 달러(약 103조원)” 라면서 이 중 2~3개 프로젝트는 그 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제안할 프로젝트는 북(北)수마트라, 북(北)칼리만탄, 북(北)술라웨시, 발리 등 4개 주에 항구와 산업단지, 발전소, 제련소, 관광지 등

## 인니, 中에 103조 원대 일대일로 사업 무더기 제안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자카르타 지하철(MRT)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

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4개 주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역종합경제회랑’으로 선정한 지역이다.

토머스 렘봉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장관은 “

이 4개 지역은 중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예컨대 북수마트라는 교통의 요지인 플라카 해협과 가깝고 팜오일 산업의 허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칼리만탄은 수력발전전에 유리해 중국 제련소가 이전하기에 이상적인 입지를 갖고 있고, 북술라웨시는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투자자들은 새로 제안되는 28개 프로젝트와 별개로 이미 87억 달러(약 9조8천억 원) 상당의 7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루훗 장관은 중국의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이류 기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현지인 노동자를 최대한 고용해야 하고 기술이전이 이뤄져야 하며 해

당 사업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을 비롯해 일대일로 차원에서 진행되는 중국주도 인프라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152개국에서 대대적인 인프라 개발 사업을 벌여왔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경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와 항만, 전력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합뉴스]

# HANSHIN

##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판대리점

### 2019년 신제품 출시

#### AT 시리즈 (인버터 형)

PM(영구자석)형 스크루 압축기 AT Series를 만나보십시오.



- 기존 일반형 가격으로 인버터 구매 가능!!
- 영구자석모터 적용 : 스크루,모터 일체형으로 기존대비 성능 8% 향상
- 소음 감소 : 기존 대비 3% 감소
- 한신의 AT Series는 영구자석 모터(IP55) 및 인버터가 장착된 에너지 절약형 공기 압축기.
- 전력비용 30% 절감

#### GRH3GS 시리즈 (일반형)

- 최고의 가성비와 성능과 내구성이 기존제품과 동일
- 50마력 \$8,800 !!
- 100마력 \$13,500!! (공장 입고가격)



#### HBH 시리즈 (소형 오일프리 5~20마력)

HBH Series는 고청정의 압축공기를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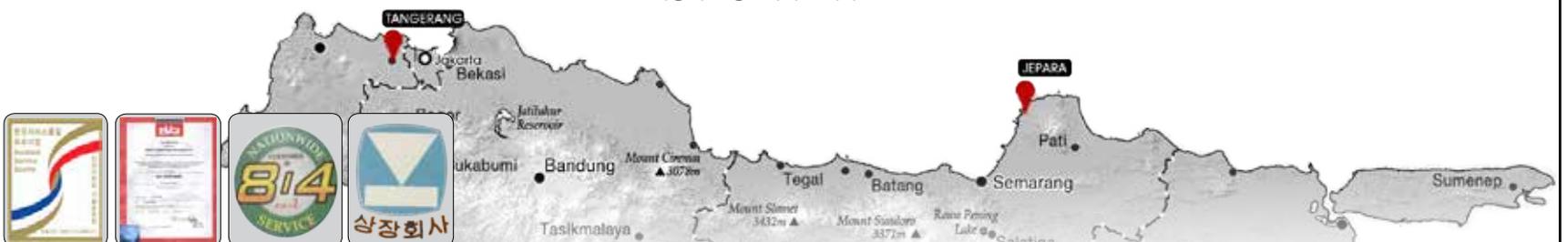


- 한신의 Oilfree 스크루 압축기 HBH Series는 압축과정 중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토출되는 압축공기에 유분이 포함되지 않아 고청정의 압축공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 GRH 5G 시리즈 (고급형)



- Turbo Fan 사용으로 냉각기능 개선
- Can 타입 세퍼레이터 적용 → 압축공기 오일 함유량 현저히 감소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u,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u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 자카르타, 지하철·경전철 잇단 개통 ... 교통지옥 탈출할까?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스리 몰야니 재무장관,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등이 24일 자카르타 MRT 개통식을 마치고 시승을 한 후 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 조코위 홍보 영상 캡처]

세계 최악 수준의 차량정체로 악명 높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지하철과 경전철을 잇따라 개통해 교통지옥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카르타 도심과 남부를 잇는 15.7km 길이의 지하철(MRT)의 개통식을 직접 주관했다.

호텔인도네시아로터리(분다란HI) 역에서 진행된 개통식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자카르타 MRT 1단계 구간의 운영을 개시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2024년까지 분다란HI 역과 자카르타 북부 해안을 연결하는 MRT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자카르타 동서 지역을 잇는 87km 구간의 공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운영을 담당하는 현지 업체인 PT. MRT 자카르타는 이달 말까지는 무료로 열차를 운행하다가 내달부터

는 승객 1인당 800~1천100원 상당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내달에는 자카르타 경전철(LRT) 1단계 구간(5.8km)도 완공돼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 LRT는 당초 2018 자카르타-빨렘방 아시안게임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수차례 완공이 지연됐다.

자카르타자산관리공사(일명 작프로)는 작년 8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LRT를 시험 운행해 1만1천여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동부자카르타 지역에 부설돼 시내 중심가와 떨어져 있는 데다 구간이 5.8km로 짧은 편이란 이유로 LRT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지만, 작프로는 환승 시스템을 도입해 주변 버스노선과의 연계를 극대화했다면서 LRT가 주민들의 새로운 발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밖에 자카르타와 수도권 주변 지역을 잇는 고가 철도

사업도 일부 구간이 내달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동남아 최대 도시인 자카르타의 인구는 약 1천만명이지만 대중교통이 열악한 탓에 오토바이가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된다.

주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인구도 140만명이 넘기 때문에 자카르타는 시내 주행속도가 평균 시속 10km를 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차량정체에 시달려 왔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달 19일 자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의 차량정체 문제가 수십년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청 자료를 인용해 연간 65조 루피아(5조2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MRT의 올해 운송 목표 승객수가 13만명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카르타의 차량정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금감원, 인도네시아·베트남 진출 금융사 지원

수석부원장, 인도네시아·베트남 금융당국자와 면담  
기업은행 인도네시아 은행 인수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찾아 현지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 진출 지원을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 수석부원장은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원보 산토소(Wimboh Santoso) 청장 겸 의장과 만났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은행이 추진하는 현지 은행 인수·합병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출범하는 합병은행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현지에서 도입하려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 서비스 등의 인허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현지 법인장의 적격성 심사

나 본국 직원 인력 운용 제한, 현지 체류 허가 소요기간 단축 등 금융회사들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또 베트남을 방문해 전 수안 하 재무부 차관, 레 밍 흥 중앙은행 총재, 하 후이 뚜언 국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각각 면담했다.

그는 현대해상과 미래에셋생명, KB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들이 현지 보험사 지분 인수나 합작법인 설립 등의 방법으로 베트남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핀테크 기업의 베트남 진출 시 금융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금융감독 업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문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금융회사의 인허가 심사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금융회사 운영 중에 생기는 애로사항들도 원만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 오거돈 부산시장 인니 수라바야시와 조선 분야 협력 논의

부산시는 아세안 국가를 방문 중인 오거돈 부산시장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에 조선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국영 조선소인 'PT PAL'을 방문해 해양플랜트 해체기술 교류와 조선기자재 업체 진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1939년 설립된 이 조선소에는 1천300여명이 근무하며 군함과 상선을 만들고 있다.

오 시장은 또 트리 리스마하리니 수라바야 시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선박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협력할 '조선기술협력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 밖에 부산~수라바야 항공 직항로 개설,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도 논의했다.

부산시 제공

남선알미늄
 (주)미안 ACE WINDOW
 이지폴딩
 현대홈도어

**PT. KAISAR SINAR HISASH**  
 www.siansash.co.id / www.pintulipat.id

# 우리는 窓門을 만듭니다!

시안의 窓門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고  
책임시공을 약속합니다.

**HEAD OFFICE / FACTORY JAKARTA**  
 Jl. Pahlawan KM 1, Karang Asem Timur  
 Citeureup – Bogor 16810 Indonesia

Telp. : 021-8794-3838 Fax.: 021-8794-3839  
 Email : info@siansash.co.id

## 2018년 최고의 해를 보낸 VF 코퍼레이션



“변화는 고통스러운 것”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VF 코퍼레이션의 2018년 결과를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임기 첫 해를 보낸 Steve Rendle 회장 겸 CEO는 본사를 액티브와 아웃도어에 집중하게 하고 데님 사업부는 개별 회사 (군투어)로 분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본사도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덴버로 이동했다.

VF 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매우 바쁜 한 해를 보냈지만 투자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반스를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로 만들었고 3분기 보고서에서 27%의 성장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연간 매출액을 50억 달러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1월 수익 결산 시, Rendle 회장은 “회사의 대사를 높였다” 고 말했다. “당사는 지난 24개월 동안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

VF 코퍼레이션은 신발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진화하고 있다.

VF의 포트폴리오에는 반스와 팀버랜드, 노스페이스, 알트라, 테라, 코디아, 스마트울 등이 있다.

“신발 사업은 VF에게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신발사업 부문은 실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세에 있다” 고 VF의 Steve Murray 전략프로젝트 부회장은 말했다. “신발사업 부문은 아웃도어와 액티브 브랜드 매출의 상당 부분,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해 반스가 거둔 실적은 당사의 성장 동인이었다.”

2018년 VF가 성장하는 데 반스만이 일조한 것은 아니다. 노스페이스도 하반기에 약진을 했다. 기능성 아웃도어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지난해 두 자리수 수익을 기록했다.

크레딧 스위스의 Michael Binetti 애널리스트는 반스가 정체기에 들어서게 되면 노스페이스가 VF의 주요 성장 리더 자리를 차지하게 될 신호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발사업 부문의 확장 때문에

▲ VF 코퍼레이션의 기능성 러닝 브랜드인 알트라가 빠른 성장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인 Jean-Marc Dijan이 최근 신발 사업 부문의 대표로 VF에 합류했다. Dijan은 이전에 솔로몬과 윌슨, 아크테릭스의 신발 사업 부문 전략팀을 이끌었던 경력이 있었다.

Dijan는 기술 혁신을 이뤄 VF의 신발사업 부문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리고 VF는 지난 해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지난 6월, 아이콘 헬스 앤 피트니스로부터 1억3,170만 달러에 알트라를 인수한 것이다.

2011년 설립된 러닝 브랜드 알트라는 지난 해 5,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 같은 성과는 VF 산하에서 더욱 큰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당사는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더욱 많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도입할 계획” 이라고 Murray 부

회장은 말했다.

“알트라의 성장으로 확신을 갖게 됐으며 차별성과 특별함이 있는 알트라가 러닝 및 트레일 시장에서 의미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Murray 부회장은 알트라의 터린 IQ 스마트 신발이 2017년 시장에 선을 보인 이후 경쟁력 있는 러닝 시장에서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발은 인솔 안에 레이저처럼 얇은 IQ 센서를 장착해 거리와 속도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러닝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 달리는지도 추적하고 제대로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보이스 코치 기능도 장착됐다.

Murray 부회장은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러너와 운동선수들이 알트라의 특별한 디자인에 마음을 뺏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브랜드는 충성스러운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 고 그는 덧붙였다.

물론, VF는 소비자가 원하는 특별함과 품질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하는 동시에 제품 기능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브랜드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 같은 주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VF의 기업 전략이다. 새로 이전한 본사는 시내에 위치한 LEED 골드 인증 마크를 획득한 건물에 자리하고 있으며 2020년에 개조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800명의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사가 덴버로 이동하면서 VF 직원들은 아웃도어 생활에 대한 질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 VF의 초석과도 같은 브랜드 팀버랜드에게 지속 가능성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팀버랜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친환경 제조 방법으로 상품을 생

산하는 최전선에 있었다. 예를 들어, 50% 가량을 재활용 PET를 사용해 만드는 리보틀 (Re-Botl) 패브릭은 팀버랜드 신발 컬렉션에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소재는 다른 VF 브랜드에서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팀버랜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과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청사진으로 여기고 있다. VF는 팀버랜드를 모범으로 삼아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지난 해 Rendle 회장이 ‘올해의 책임감 있는 CEO’ 로 선정되면서 회사도 같이 인정받게 됐다. 이 연례 시상식은 혁신적인 환경 및 사회, 관리 운영 어젠다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당사는 사람들과 우리 지구를 더욱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기업에게도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사려 깊은 리더십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고 Rendle 회장은 말했다.

2018년, VF는 ‘가장 훌륭한 100대 기업시민’ 과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가 선정하는 ‘윤리적 기업’ 에 이름을 올렸다.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과 지역 봉사활동 참여가 사업 성공의 열쇠였다고 Murray 부회장은 말했다. 그리고 VF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나 비슷한 가격대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기분 좋게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이 소비자의 쇼핑 습관을 바꿀 수 있지만, “당사의 브랜드와 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웠던 고객들에게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멋진 수단” 이라고 Murray 부회장은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세계와 소매 매장이 똑같이 중요해진 시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당사는 이 두 가지 시장 모두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출처 : Footwear Insight

#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 신구세대를 모두 사로잡은 반스, 성장 모멘텀 타고 시장 확대 나서

또 다른 최절정의 해를 보내고 있었던 반스는 지난해 9월 자사의 기대치를 높였다. 향후 5년 내 수익을 67% 성장시켜 50억 달러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이는 상당히 대담한 계획처럼 보였지만 이해 관계자들을 고무시키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실제로 반스는 자신의 공약을 거의 달성하고 있다. 반스는 VF 코퍼레이션의 포트폴리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로써 지난 3분기에는 2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반스는 3억 달러 가량 성장했다. 그리고 2023년까지 50억 달러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반스의 Doug Palladini 글로벌 브랜드 회장은 말했다.

반스의 이 같은 성장은 최신 트렌드를 따르는 동시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에서 시작됐다. Z세대는 나이키가 트렌드를 따라오지 못하게 된 이후 반스를 선호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베이비 부머 세대와 X세대는 반 도렌 형제가 1966년 애너하임에서 경호 고무를 사용한 슬립온을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반스를 착용하고 있다. 사실, 2018년 반스 판매 수익의 65% 가량을 헤리티지 모델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한다.

“나는 세대간 충돌을 보면서 자랐다. 그리고 그런 충돌은 오늘날 우리 기업 문화에서는 볼 수 없다.”고 Palladini 글로벌 브랜드 회장은 말



▲ 더그 팔라디니 (Doug Palladini), 반스의 글로벌 회장

했다.

“반스는 나와 같은 옛 친구뿐만 아니라 차세대 젊은이들, 즉 신구세대 모두가 찾는 브랜드다.”

“반스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DSW의 Jim Weinberg 최고마케팅 책임자도 동의했다.

“반스는 X세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도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한편, Weinberg 최고마케팅 책임자는 2018년 DSW의 최고 판매상품으로써 워드 로켓 클래식을 언급했다.

NPD 그룹의 Matt Powell 선임 고문에 따르면, 반스가 성공하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그 한 가지는 매우 강력한 레트로 유행 주기에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 유행했던 신발이 바로 오늘날 유행하고 있다.”고 Powell 선임 고문은 말했다.

“현대는 애슬레저 (일상

서 입는 스포츠웨어) 트렌드가 붐을 이루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기능성 운동복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의류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반스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다. 세 번째 요인은 반스가 시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로 53주년을 맞는 반스는 방대한 양의 아카이브를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NPD 데이터로 만든 최고 성능의 모델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반스는 하나의 스타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한편, Palladini 글로벌 브랜드 회장은 2018년 반스의 대규모 판매업체에는 Era, Old Skool, Slip-On, Authentic, Sk8-Hi, Checkerboard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반즈를 구입하며 복고풍을 좋아하는 구매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식 애널리스트 Michael Binetti는



지난 1월 반스가 아디다스를 누르고 레트로 시장을 점유했다고 평가했다.

레트로는 향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태껏 ‘과거’라는 컨셉트로 성장한 브랜드는 없었다.

Palladini 글로벌 브랜드 회장은 반스의 성공은 브랜드에 영감을 부여했던 것들, 즉 예술과 음악, 액션 스포츠와 거리 문화를 토대로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요인에 중점을 둔 반스는 미적인 요소와 디자인으로 세계에 매력을 떨치고 있다.

“베이징에서부터 베를린, 그리고 보스턴까지 세계 어디를 가든 당사의 제품 라인을 착용하고 있는 소비자와 당사의 매장, 당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고유한 문화와 현지 음악인, 영향력 있는 사람과 운동선수들이 반스를 소비자에게 연결시키고 있다.

“당사는 라이스프타일/패션계에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 근원은 액션 스포츠의 기능을 기반으로 한 상품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날 소비자나 소비자의 연령대를 연결한다는 것은 세분화된 리테일 업계를 제대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스는 고급품 시장과 중간 수준의 시장 모두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양쪽 시장

모두에서 의미 있는 상품이 되고 있다.”고 Powell 선임 고문은 말했다.

Palladini 회장도 파트너사를 선별해 유통을 제한하고 “세분화 및 심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스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시장에서 과잉 유통되지 않게 하고 있으며, 2018년 여러 리테일 업계의 도산 사건 속에서도 회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반스 핵심전략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광고(DTC)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반스의 직접 광고 채널이 수입과 수익성을 유도하는 동인이라고 분석했다. “Paul Van Doren이 처음 공장을 열었을 때 공장 앞에 작은 리테일 매장을 설치했다. 회사가 직접 소매 판매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2018년 반스 유통 채널 48%를 차지한 것은 도매다. 2017년 9%에 불과했던 DTC는 2018년 50%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채널이 고루 성장하고 있어 향후에도 반스는 건강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스가 일부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반스가 2018년에 부진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반스는 주요 시장에서 판매 경로를 확장해 50억 달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두 곳의 경쟁사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반스보다 각각 13배와 11배 영업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경쟁사의 규모는 거의 6배나 높다. 하지만 반스는 이 같은 수치가 아시아와 미국에서 성장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보다도 먼저, 반스는 Era 같은 상징적인 스타일을 다시 부활할 계획이다. Era는 1976년 처음 도입된 시그니처 와플 아웃솔과 로켓 캔버스 실루엣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오리지널보다 두 배 강화한 독점 기술 발포고무를 사용한 ComfyCush Era는 올 2월에 선을 보였다. “어딜 가든 이 제품을 보게 될 것”이라고 Palladini는 말했다. 전체적으로, 반스는 컴포트 제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견인력이 우수한 경량의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반스는 성공 가능한 일련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지도를 쌓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다.

“당사는 업계와 소비자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그만큼 겸손도 배우고 있다”고 Palladini 회장은 말했다.

출처 : Footwear Insight

## 제옥스, 활동성과 스타일 강조한 스니커즈 ‘키라’ 출시



이태리 숨쉬는 컴포트화 제옥스(GEOX)에서 신상품 ‘키라(Kirya)’ 스니커즈(사진)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키라 스니커즈는 여글리 스니커즈의 감성이 제옥스와 만난 제옥스만의 새로운 스니커즈다.

명품 슈즈 디자이너 출신이자 제옥스의 크리에티브 디렉터 ‘어네스토 에스포지토’가 직접 디자인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이번 제품은 5.5cm 키높이 효과가 돋보이는 볼드하고 청키(chucky)한 아웃솔(outsole)

에, 이태리 감성의 세련된 어퍼의 컬러와 소재가 매칭돼 도시 라이프와 자연의 무드가 공존하는 이태리 디자인 감성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여기에 제옥스만의 숨쉬는 기술인 ‘멤브레인(Membrane) 기술’로 통기와 방수성, 편안함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신발 밑창에 그림감과 유연성을 겸비해 도심형 출퇴근 및 봄철 가벼운 워킹에도 쾌적하게 신을 수 있는 데일리 슈즈다.

가격은 25만 원대다. 봄과 잘 어울리는 크림하얀 스카이블루와 라이트 그레이, 화이트, 레드 등 세 가지 컬러로 구성돼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키라 스니커즈는 글로벌 컴

포트화 편집샵인 TWC(더 워킹 컴퍼니) 매장과 전국 제옥스 백화점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글로벌 컴포트화 편집샵 TWC는 이날 자사몰을 오픈, 다양한 프로모션과 함께 직접 소비자와 소통하고 브랜딩을 위한 채널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제옥스 관계자는 “키라는 지난해부터 복고 열풍 속에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어글리 슈즈를 제옥스만의 최신 기술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이번 시즌 야심작”이라며 “고객 취향에 따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는 슈즈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 2018년 인도네시아 수도권 공단 판매 면적은 115헥타르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수도권 산업 단지의 용지 판매 면적은 114.5헥타르로 2017년 실적의 약 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4분기

(10~12월)에는 롯데그룹의 화학 대기업인 롯데케미칼이 반뜰 주 찰레곤의 공장 건설 용지를 취득해 2018년 연간으로는 2017년의 실적을 웃돌 전망이다.

3분기(7~9월)의 용지 판매 면적은 46.5헥타르. 서부 자바 주 까라왕의 수르야찡파(Suryacipta) 공단과 반뜰 주 세랑의 모데른 찰칸데(Modern Cikande) 공단 용지가 판매됐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산업지역 개발국 관계자는 “서부 자

바 주의 공업 단지가 포화 상태가 되고 있으며, 반뜰 주로의 진출이나 이전을 생각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서부 자바 주 브까시의 판매 면적은 총 4.74헥타르였다. 내역은 그린랜드 인터내셔널 공단(GIIC)이 2.04헥타르, 브까시 파자르 공단(BEST)이 2헥타르, 자바 베카 공단(KIJA)이 0.7헥타르로 전기의 24.9헥타르에서 대폭 축소됐다.

## 교통부, 반둥-찌르본-끄르따자띠 신공항 연결하는 철도 부설 계획



인도네시아 교통부 철도국은 20일 서부 자바의 끄르따자띠 신국제 공항과 반둥, 찰르본 등 2개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두 도시와 끄르따자띠 공항의 철도 인프라를 구축해 편리성을 높인다.

현지 언론 드퓌크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앙 자카르타 끄르따자띠 국제 전시장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에서 개막

한 ‘인도네시아 철도 컨퍼런스 2019(Indonesia Railway Conference 2019)’ 개막식에서 철도국의 유디 과장은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서 끄르따자띠 공항으로 오기가 힘들다. 철도 노선을 개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건설시기와 재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끄르따자띠 공항은 지난해 5월 공용 개시했다. 반둥-찌르

본 간 철도가 있지만 어느 도시에서도 직접 끄르따자띠 공항으로 향하는 철도 노선은 없다. 자동차를 이용해 공항으로 가는 경우 찰르본에서 찰코보-빨리마난 고속도로를 경유해야 한다. 반둥에서 약 1시간 일반 도로를 통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공항까지 총 3시간이 걸린다.

## 인니 정부, 투자·수출 관련 새로운 부처 설립 검토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이 투자 유치 촉진과 수출 확대를 담당하는 부처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최

근 각료 회의에서 투자와 수출 확대에 임하는 새로운 부처의 설립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92조 7,000억 루피아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800억 5,920만 달러였지만, 성장률은 전년의 16%에서 크게 낮아졌다.

## 부디 교통장관, “중자바 신공항 내년 4월 완공”

인도네시아 부디 교통부 장관은 중부 자바 주 뿌르바링가(Purbalingga) 지역에 계획하고 있는 ‘젠드럴 브사르 수디르만 공항(Jenderal Besar Soedirman Airport)’의 제1기 건설 공사를 내년 4월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 개장으로 중부 자바 서부 지역의 접근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제1기 공사에는 활주로(폭 30미터, 길이 1,600미터), 유도로(폭 18미터, 길이 165미터), 주기장(6,432 평방 미터), 터미널(3,600 평방 미터) 건

설이 포함된다. 여객 취급 능력은 연간 3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부디 장관은 “뿌르바링가 주변에는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현지 기업이 가발을 생산하고 있다”며 “신공항 개장에 새로운 투자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공항 운영사 앙까사 뿌라2(PT Angkasa Pura2, AP2)는 제1기 공사의 사업비에 3,000억 루피아를 투입한다.

## OK저축은행, 인니 인수 은행 합병안 통과



OK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 등이 소속된 아프로서비스그룹이 OK저축은행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의 디나르뱅크(Bank Dinar)는 현지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현재 OK뱅크 인도네시아(옛 안다라뱅크:Bank Andara)와의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16년 12월 디나르뱅크의

지분 77.4%를 인수한지 약 2년만인 지난해 10월에서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으로부터 디나르뱅크 인수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의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합병안 통과 이후 현지 금융당국의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두 은행의 합병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은행이 통합되면 통합 은행은 중소형급인 ‘BUKU2’ 은행으로 인정받게 된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기본자본(Tier1) 규모에 따라 120여개 은행을 BUKU1~4로 분류한다.

BUKU4에 해당하는 은행이 가장 규모가 크고 우량하다.

고용지원, 품질/환경인증, CLEAN사업

# 대한민국 No.1 보일러

## 삼호 보일러

SINCE 1968

###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o,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PT. HANSHIN AIR COMPANY**

株式会社 三湖ボイラー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yler.com

## 신발연구소, 빅데이터와 3D스캐너로 정확한 맞춤 구두 선보여

신발연구소의 남성 수제화 브랜드 ‘맨솔(mansole)’은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구두전문가 솔맨이 직접 찾아가는 O2O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서비스는 높은 유통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신 성수동 장인에게는 정당한 대우를,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품질 높은 수제화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통 구조를 선보인다.

또한 ‘풋프린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의 발 치수를 기반으로 정확한 사이즈의 구두를 추천하고 제작하고 있다.

최근 신발연구소는 풋프린트 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수집, 분석된 1만 6,000건 이상의 발 데이터로 빅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데이터 매칭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더 나아가 새로운 디자인, 라스트, 가죽 등 신상품 개발 및 출시에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18일, 그동안의 노하우로 한국인의 발에 맞게 제작한 첫 데이터화 ‘맨솔 클라우드’를 온라인 편집샵 29cm를 통해 선보였다. 이와 함께 신발연구소는 서울수제화진흥원과 손잡고 3D 풋 스캐닝 솔루션을 선보이는 한편, 쇼룸을 방문한 고객에게 정확한 발 데이터와 개인별 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발연구소 쇼룸에 설치된 3D 풋 스캐너는 측정기에 발

을 올리면 5초 내에 3D 렌더링 기술을 통해 3차원 이미지로 발 사이즈와 모양을 측정해준다.

발 길이, 발볼 둘레, 발볼 넓이, 아치 등 정확한 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서울수제화진흥원과 함께 진행하는 3D 풋 스캐닝 컨시어지 서비스에 관련해 신발연구소 이광일 본부장은 “3D 스캐너의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편한 구두를 선사하는 노력이고, 이를 통해 보다 면밀한 데이터를 얻어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3D 스캐너 컨시어지 서비스는 성수동에 위치한 신발연구소 쇼룸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만의 수제화를 제작 할 수 있다. 한국경제

## “운동화 신고 출근한다” 하이힐 벗고 스니커즈 신는 여성들

높고 딱딱한 굽의 구두가 빠르게 사라지고 편안한 스니커즈나 운동화를 찾는 여성이 늘고 있다.

가볍고 실용적인 캐주얼 의상을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출퇴근 전후로 운동을 즐기는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7일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여성 고객이 구매한 신발 가운데 스니커즈·슬립온이 31%, 운동화가 20%로, 굽 낮은 신발의 구매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힐·펌프스 등 구두의 구매 비중은 10%, 여성 부츠·워커는 22%로, 굽이 높은 신발의 비중은 30%를 조금 웃돌았다.

3년 전의 수치는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2015년 같은 기간 힐·펌프스 구매 비중은 19%, 여성 부츠·워커는 30%로 굽이 높은 신발이 여성 고객 구매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스니커즈·슬립온은 19%, 운동화 12%로 합쳐도 30%를 겨우 넘었다.

여성들이 운동을 즐기기 시작하고 오피스룩이 캐주얼화하는 데다가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정착하면서 일상 속에서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업계의 분석이다.

박지영 G마켓 쇼핑콘텐츠팀장은 “요즘은 자기관리를 위해 운동에도 워낙 열심이고, 옷차림도 각 잡힌 정장보다는 비즈니스 캐주얼에 스니커즈



를 코디하는 식으로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며 “이에 맞춰 스니커즈도 출근용으로도 손색없는 세련된 스타일로 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는 봄을 맞아 저마다 주력 상품으로 스니커즈를 출시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다이나핏은 최근 ‘봄버’, ‘팬코’, ‘웨버’ 등 데일리 스니커즈 3라인 총 9종을 선보였다.

컨버스도 1970년대 컬트 영화 ‘뉴워리어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스니커즈 신제품 ‘뉴워리어스’를 출시했다.

신발 브랜드 수페르가는 서울의 유명 빵집 태극당과 협업, 스니커즈에 태극당을 대표하는 케이크와 모나카 등의 색상과 무궁화 로고를 담은 스니커즈를 내놨다.

이 같은 운동화, 스니커즈 열풍은 기존의 운동화 브랜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구두를 주력 상품으로 삼았던 브랜드도 너나 할 것 없이 편안한 신발을 선보이고 있다.

구두 브랜드 엘칸토는 최근 ‘어블리’ 스니커즈를 출시했으며 신발 브랜드 슈콤마보니도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디어른 스니커즈’ 2종을 선보였다.

서울경제

## 올버즈 설립자 Zillinger, 지속 가능 기업을 소재로 한 라디오 쇼 진행



▲ 올버즈 설립자들, 사진의 오른쪽이 Zillinger CEO다.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신발 브랜드의 최고경영책임자 겸 공동 설립자 Joey Zillinger가 사회적 책임기업을 설립하는 기업가들을 위한 새로운 라디오 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퍼포즈 빌트(Purpose Built)’라는 명칭이 붙을 이 쇼는 뉴욕 시의 현지 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그리고 Zillinger CEO가 지속 가능 기업을 운영 중인 게스트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각 에피소드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디오쇼 첫 회에는 Zillinger CEO와 함께 올버즈를 설립한 Tim Brown이 게스트로 나올 예정이다.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 현대차 인니 공장 설립 박차 ... 동남아 전진기지 구축 나서



## 협력사 발굴 등 물밑작업 i프로젝트 TF 본격 운영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생산 법인 설립을 염두에 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전하는 중국 대신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설립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지에서는 현대차 공장이 들어설 용지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달 인도네시아 대선이 투자 이행의 변수가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사내에서 'i프로젝트 TF'를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며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한 TF 관계자는 "중국 생산 물량을 줄이는 만큼 인도네시아 생산량을 늘려 동남아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는 목표"라며 "특히 인도네시아 현지 우수 협력사를 적극 발굴해 생산비를 크게 낮추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i프로젝트 TF는 현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TF 중 하나일 뿐"이라며 "생산법인 설립을 비롯해 다양한 인도네시아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선 현대차가 약 1조원을 투자해 연산 20만~25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을 지을 것이라 추측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반체

품 조립(CKD) 방식으로 승용차와 상용차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이 들어선다면 현대차가 동남아에 세우는 첫 번째 생산기지다. 현대차 협력사와 인도네시아 교민 사이에서는 구체적 공장 위치까지 거론되고 있다. 수도인 자카르타 근교의 짜카랑, 짜잠빡, 수방 등 서부 자바 주 주요 공업단지들이다. 모두 자카르타와 인도네시아 제2도시 수라바야를 잇는 도로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도요타·혼다자동차 같은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기지를 조성했다. 매일경제

## 월드코리안 2019 장학생 모집

월드코리안장학회에서 2019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동 장학회는 국내 대학에 들어와 수학하고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학업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2016년 출범했다.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 한인사회 자녀로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거나 입학예정인 자 20~30 명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5박6일 만주독립운동 탐방경비 지원과 20만원 현금 장학금을 포함하여 1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동 장학회는 역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문화탐방 등의 이벤트를 열어 향후 세계한인사회의 후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램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국내에 들어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16개국 22명, 2017년에는 17개국 25명, 2018년에는 11개국 20명의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장학생 신청 접수기간은 4월1일부터 8월30일까지이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코리안 홈페이지에서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3867>)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비즈넷 구축' 코린도 그룹 물류사업본부 통합물류솔루션 오픈 비마루나 물류사업 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



물류 IT 전문기업 한국비즈넷이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물류사업본부인 비마루나 자야(PT. BIMARUNA JAYA)에 통합물류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국비즈넷은 자사의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비마루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IT 고도화를 이뤄내 양사가 Win-Win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한국비즈넷은 4월1일 비마루나 자야의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포워딩 시스템을 시작으로 창고부문 시스템을 구축한 비마루나는 이번 통합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러 업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일원화하는 한편, 물류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 통합시스템엔 국가별 세제, 관세법 등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비마루나에 공급된 시스템에도 현지 물류 문화 및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1991년에 설립된 코린도 물류사업부 비마루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약 9만5200㎡ 규모인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세 수출입과 일반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1만2000㎡ 및 일시 보관이 가능한 8000㎡ 규모의 물류센터를 가동 중에 있다. 또한 내륙 운송과 수출입 컨테이너 국제물류 및 프로젝트 화물 서비스는 물론, 약 8000TEU 보관이 가능한 컨테이너 야드(CY) 운영 등 육상□해상□항공을 아우르는 종

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컨테이너 야드(CY) 운영, 육상운송, 보세물류 창고(PLB. Pusat LogistikBerikat)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마루나는 지금까지 축적한 물류 노하우를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 새 도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또한 그룹사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기업 수출입업무 대행을 적극 수행하며 물류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코린도 물류사업본부 조명국 전무는 "G-SABIS시스템 구축 오픈을 통해 앞으로 인도네시아 물류시장을 선두하는 물류 법인이 될 것이라 장담하며 시스템 구축에 힘을 써준 한국비즈넷 측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비즈넷은 이미 구축된 베트남 지사와 인도네시아에서 수행한 물류IT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회사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비즈넷 김민중 부사장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 상주하며 현지 물류업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 현지문화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노력과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금의 솔루션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비즈넷 구축'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물류사업본부통합물류솔루션 오픈 (사진:코린도 홍보실 제공)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http://www.toilon-insupanel.com)

래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mm	25mm
3. 35mm Spandek		920mm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55mm
6. Genteng Metal (기와)		82mm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 4월 대선, '서민 VS 엘리트' 대결 양상으로 전개 농어민·공장노동자는 조코위, 공무원·교사는 프라보워 지지로 몰려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19년 3월 24일 인도네시아 반퐁주 세량에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사진: 조코위 공식 SNS 계정]

내달 17일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 선거가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는 서민과 정권교체를 원하는 엘리트 계층의 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22일 사이 전국 34개 주 남녀 1천96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4%가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대선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와 러닝메이트인 산디아가 우노 전 자카르타 부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3.3%에 그쳤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응답자의 교육 수준이나 직업군에 따라 선호하는 후보가 확연히 갈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CSIS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초·중·고교 졸업자의 경우 응답자의 57.3%가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프라보워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비율은 28.0%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에서는 조코위 대통령(45.8%)과 프라보워 후보(39.9%)의 지지율 격차가 6%포인트 내외로 크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응답자들에서는 프라보워 후보의 지지율이 42.5%로 조코위 대통령(35.2%)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선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거의 정비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민은 조코위 대통령을, 엘리트 계층은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직업군별 후보 선호도를 살펴보면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58.5%가 조코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장노동자들의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도 57.0%에 이르렀지만,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7.0~28.9%에 그쳤다. 반대로 공무원과 교사들은 프라보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전체의 48.2%로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

(33.7%)보다 14.5%포인트나 높았다. 응답자의 80% 이상은 누구에게 투표할지 이미 마음을 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응답자는 전체의 13.1%였으며,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2.21%포인트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지진 후보가 갈리는 이런 양상은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워 후보의 출신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중부 자바의 빈민가 출신으로 지수성가한 조코위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과 소통형 리더십으로 2014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켜 군부나 기성 정치권 출신이 아닌 첫 대통령이 됐다.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통치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프라보워 후보는 군장성 출신으로 보수세력과 엘리트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작년 9월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꾸준한 우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현지 정치권에선 최근 들어 프라보워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릿방 콤파스가 작년 10월 19.9%포인트에 달했던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워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현재 11.8%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을 기정사실로 여겼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인도네시아 반부패위원회(KPK)가 여당 연합 소속 정치지도자가 부패 혐의로 체포되고 유습 갈라 현 부통령의 동생과 조카가 프라보워 총재 진



▲ 야권 대선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가 2019년 3월 26일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프라보워 공식 SNS 계정]

영에 합류한 것을 시작으로 일부 정치인이 야권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조코위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진보 진영에선 보수 성향 성직자인 마룸 아민 울라마 협의회(MUI) 의장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한 반발로 기권표를 던지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야권 지지자들은 '골롱안 뿌띠'(일명 골뽏·백색 그룹)로 불리는 기권 운동이 확산할 경우 프라보워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이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이런 움직임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반론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엘리트 계층 내부에서 벌어지는 '차잔 속의 태풍' 일 뿐 절대다수의 유권자에게는 동조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 이유에서다. 일부 정치인의 야권 전향도 혹시 모를 상황

에 대비한 보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국립이슬람대학(UIN) 교수인 안선근 박사는 "야권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 만큼 이번 선거는 초접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조코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국계 정치 컨설팅 업체 대표는 "두 진영은 사실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적 지향점에선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워낙 심각한 만큼 인도네시아 국민 다수는 부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조코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은 내달 17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약 1억8천700만 명의 유권자가 참가해 투표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http://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eva-mendat  
Giant EXPRESS  
Best Quality  
Fast Delivery